

ESG 기반 비즈니스 모델 혁신

01. BATTERY ECOSYSTEM

SK는 환경 분야에서 이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친환경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근원적 변화를 가능하게 할 핵심요소의 하나로 배터리에 주목하고,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SK의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SK는 기업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물론, 경제·사회 구조의 저탄소 혁신을 가능하게 할 배터리 산업의 가능성에 주목하며 생산에서부터 사용/렌탈 및 충전, 재사용과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밸류체인 전 과정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멤버사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SK온의 전기차 배터리는 2억 7,000만 개의 셀을 납품하는 동안 차량 화재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성과 양극재·음극재·모듈 등의 독자기술을 통해 확보한 장거리 주행성능 등을 자랑하며, 15분 안에 급속충전이 가능합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50여년 간 축적해 온 화학기술과 최첨단 나노 테크놀로지를 적용하여 국내 최초, 세계 세 번째로 리튬이온 전지의 핵심부품인 분리막(LiBS, Lithium-ion Battery Separator) 독자개발에 성공하였고, SKC는 글로벌 동박 제1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배터리 소재 분야를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BaaS(Battery as a Service)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배터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수명이 다한 배터리에서 니켈, 코발트, 리튬 등의 금속을 회수해 배터리 소재에 재활용합니다.

SK시그넷은 독보적인 기술과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완속에서부터 초급속 충전기에 이르는 솔루션을 제공하며 전기차 주행이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SK 멤버사들은 각 회사가 지닌 비즈니스 역량을 활용하고 연결해 배터리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BATTERY ECOSYSTEM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친환경 솔루션 제공



02. CLEAN ENERGY ECOSYSTEM

SK가 그리는 미래는 친환경 에너지를 동력으로 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미래 에너지 시장을
 앞서 준비하고자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래 에너지 시장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가 중심이 되고
 에너지솔루션이 전체 에너지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SK는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멤버사의 다양한 사업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및 수소 에너지 생산부터 저장과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SK주식회사, SK E&S, SK이노베이션,
 SK온, SK가스, SK에코플랜트 등이 참여하고 협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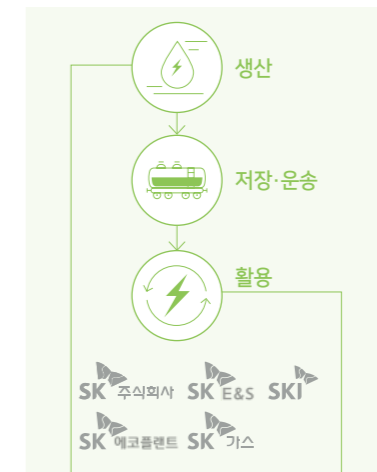
SK주식회사는 수소 경제산업의 선두 기업인 미국 Plug
 Power의 지분 인수를 통해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청록수소를 생산하는 미국 모놀리스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수전해 설비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및 사업 확장을 통해 SK 그룹은 친환경 수소 생태계
 구축을 리드해 나가고자 합니다.

SK E&S는 Business Redesign을 통해 그린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저탄소 친환경 LNG, 친환경 LNG 발전,
 수소, 재생에너지 사업 간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를 안정적·효율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민간 최대 재생에너지 사업자로서 국내에서
 운영 중인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을 비롯하여 2025년에는
 7GW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글로벌 재생에너지 Player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 SK온, SK에코플랜트는 ESS(Energy
 Storage System) 사업, 연료전지 사업, 분산발전 기반의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EV 배터리 기반의 모빌리티 솔루션 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솔루션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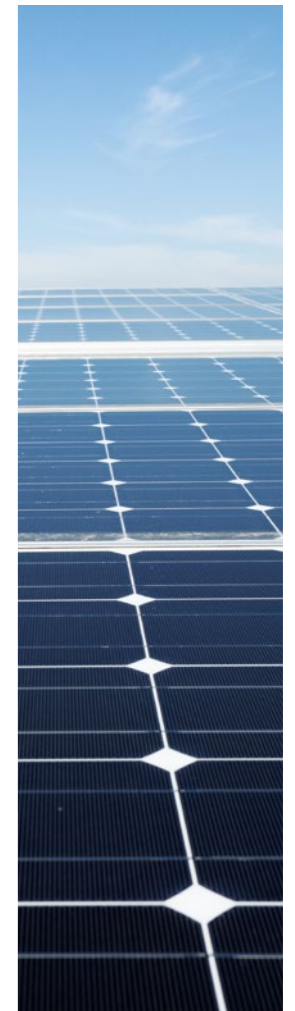
무한한 청정 에너지로 움직이는 미래사회는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ESG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해 SK가 미래를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수소 생태계



신재생에너지

- ☀️ • SK E&S
• SKI
• SK 가스
- 🌪️ • SK E&S
• SK에코플랜트
- 🔋 • SK E&S
• SK온



03. PLASTIC ECOSYSTEM

SK가 Green Chemical 실현을 위해 혁신합니다. SK 화학계열 멤버사들은
 앞선 기술력을 기반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플라스틱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며 따로 또 같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지만, 환경오염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SK는 플라스틱의 순기능은 유지하는 한편, 역기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SK지오센트릭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다시 석유를 뽑아내는 '세계 최대 도시유전 기업'을 목표로 폐플라스틱을 열로 분해시켜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인 나프타로 재탄생시키는 열분해유 제조기술, 오염된 페트병과 의류를 화학적으로 분해해 재활용하는 해중합 기술 등의 상용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은 기존 석유화학 제품 중심의 화학 소재 사업을 그린소재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며 2030년까지 원료를 버려진 플라스틱과 자연 유래 바이오로 전량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SKC 또한 열분해유를 활용한 폐플라스틱 친환경 재활용 사업에 본격 착수하며 처리가 곤란했던 폐플라스틱을 대량으로 재활용하는 선순환 체제 구축에 나섰습니다.

SK에코플랜트와 SK텔레콤은 소비자들이 재활용품 자동화기기(Reverse Vending Machine), 다회용컵 수거기 등을 통해 일상에서 쉽게 플라스틱 재활용에 참여하여 탄소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쓰는 데 5분, 분해되는 데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인류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50년 후 바다에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SK가 행동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폐플라스틱을 다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혁신하여 탄소 발자국을 줄임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순환경제 밸류체인

